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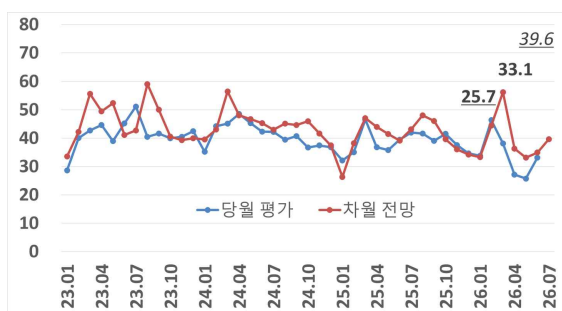
I. 2026년 6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7월 전망

■ 6월의 경기평가는 소폭 상승, 차월 전망은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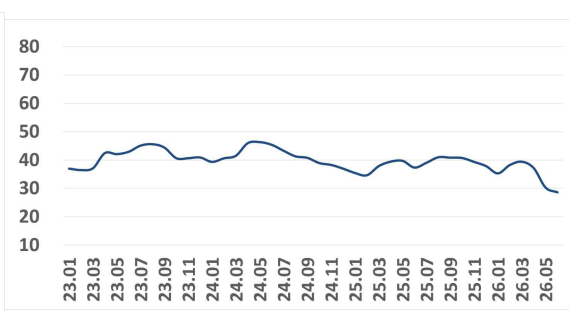
- 6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3.1로 전월(25.7)보다 상승했지만(+7.4p), 전년 동월(39.4)보다 낮은 수준임 (-6.3p). 차월(39.6)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6.5p), 중동 사태의 종식이 요원한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영애로사항으로는 폭서기 작업능률 저하로 인한 공사비 상승, 일부 건설자재의 수급난 및 단가 상승 등이 지적됨.
- 수도권은 40.0(25.7→40.0)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14.3p), 지방은 29.8(31.4→29.8)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음(-1.6p).

〈표-1〉 2026년 6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7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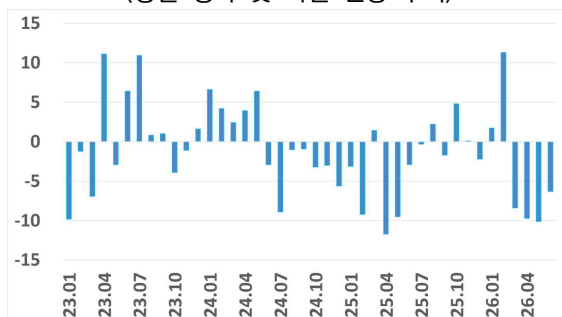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6월 평가	33.1	39.4	40.0	29.8	32.4	30.4
2026년 7월 전망	39.6	43.1	46.0	36.5	38.2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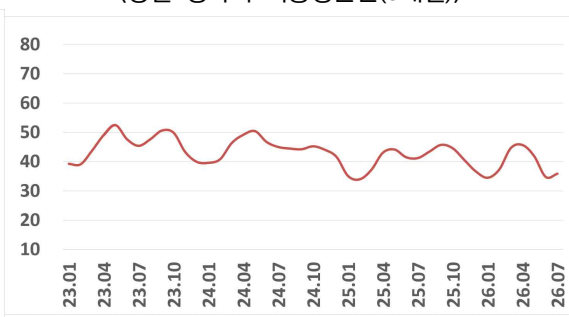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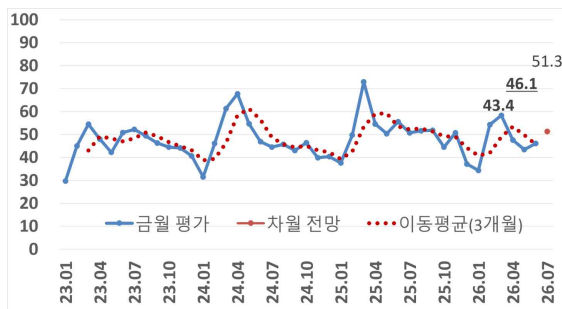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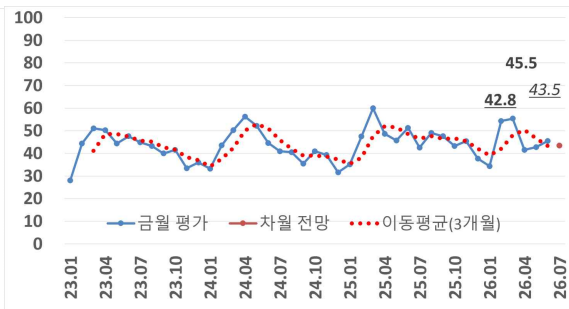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6.1(43.4→46.1)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2.7p), 여전히 전년 동월(55.6)보다는 크게 낮았음(-9.5p). 하도급수주도 45.5(42.8→45.5)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는 없었음(+2.7p). 최근에는 매월의 조사마다 지역적인 체감지수의 등락이 크게 엇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3.4→64.0)은 증가(+20.6p), 지방(68.6→37.5)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31.1p). '6·3 지방선거' 이후의 공공발주 증가에 대한 기대도 부각됨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2.8→76.0)에서 크게 상승한 반면(+33.2p). 지방(70.6→30.8)은 하락함 (-39.8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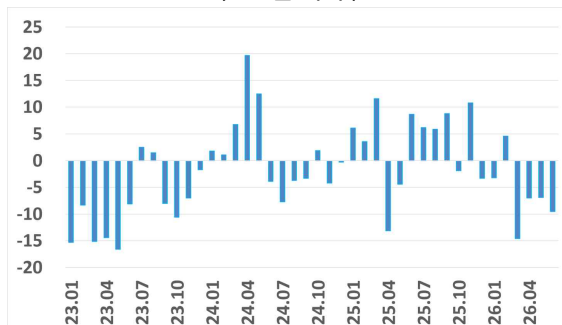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6월 평가	46.1	55.6	64.0	37.5	70.6	35.7
	2026년 7월 전망	51.3	47.5	80.0	37.5	91.2	44.6
하도급 수주	2026년 6월 평가	45.5	51.3	76.0	30.8	88.2	32.1
	2026년 7월 전망	43.5	44.4	66.0	32.7	73.5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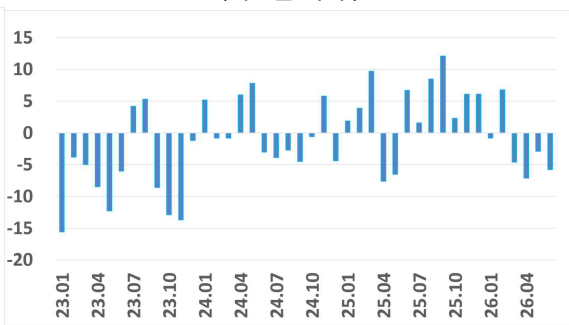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소폭 상승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5.2(52.0→55.2)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3.2p), 차월(58.8)에는 다시 하락이 전망됨(-2.0p). 이번 조사에서 공사대금의 수금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동 사안은 건설경기의 등락과 연계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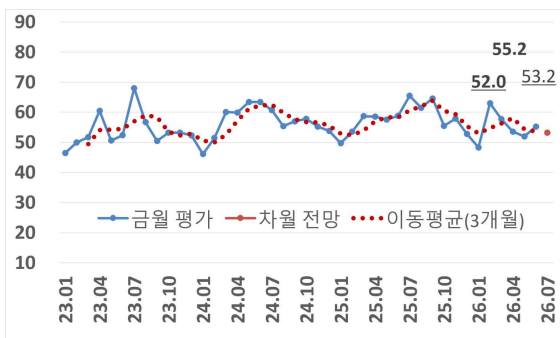
– 수도권(52.0→64.0)은 상승(+12.0p), 지방(62.7→51.0)은 하락함(-11.7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5.2(51.3→55.2)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3.9p) 전년 동월(56.3)과의 차이는 미미했으며(-1.1p), 차월(48.7)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6.5p). 지역별로는 매월 응답 결과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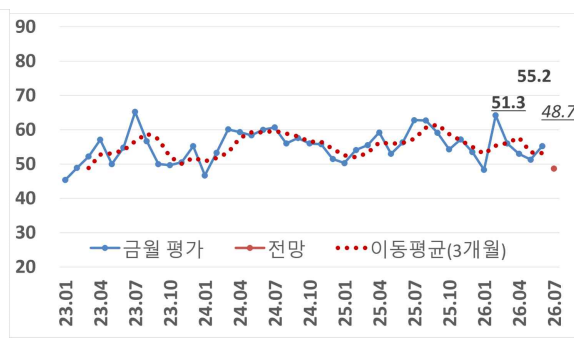
– 수도권(51.3→72.0)은 상승(+20.7p), 지방(68.6→47.1)은 하락함(-21.5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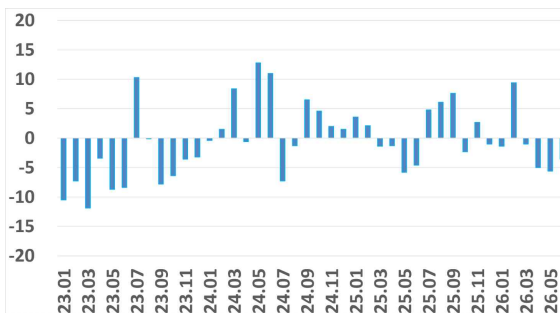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6월 평가	55.2	58.8	64.0	51.0	67.6	48.2
	2026년 7월 전망	53.2	56.3	68.0	46.2	76.5	46.4
자금조달	2026년 6월 평가	55.2	56.3	72.0	47.1	79.4	46.4
	2026년 7월 전망	48.7	55.6	58.0	44.2	58.8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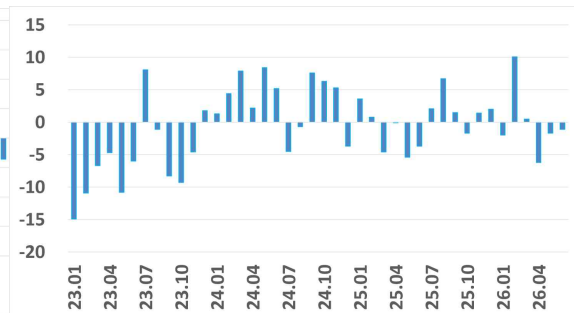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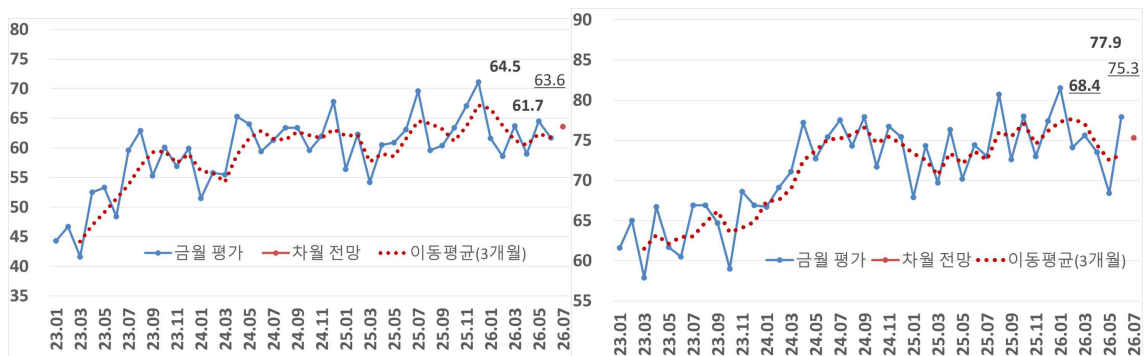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사실상 전월 수준,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개선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1.7(64.5→61.7)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면서(-2.8p) 전년 동월(63.1)보다도 조금 낮았지만(-1.4p), 사실상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음.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 요구 등에 대한 지적은 금월에도 나타남.
 - 수도권(64.5→58.0)은 전월보다 하락(-6.5p), 지방(52.9→63.5)은 상승함(+10.6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7.9(68.4→77.9)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9.5p), 전년 동월(74.4)보다 높았음(+3.5p). 그러나 내국인 기능인력의 수급문제는 여전한 사안임.
 - 수도권(68.4→72.0)은 소폭 상승(+3.6p), 지방(62.7→80.8)은 상승함(+18.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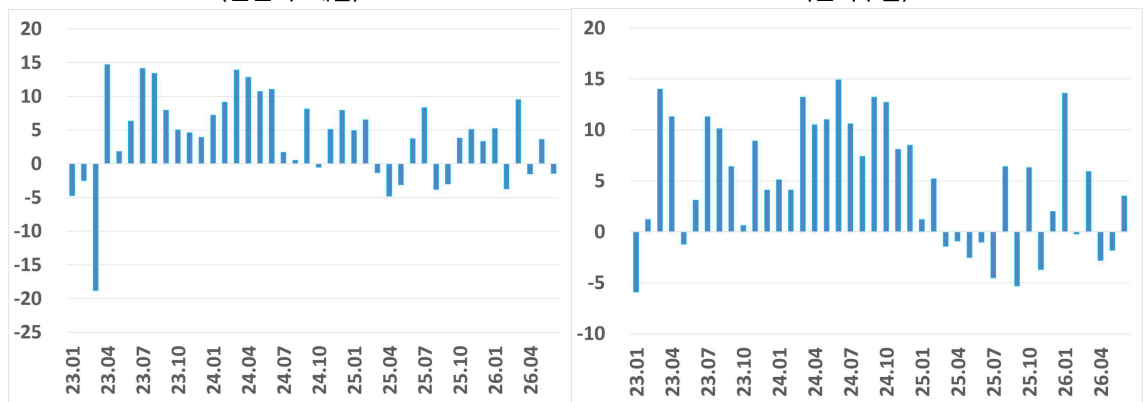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6월 평가	61.7	63.1	58.0	63.5	44.1	82.1
	2026년 7월 전망	63.6	63.8	66.0	62.5	52.9	82.1
인력수급	2026년 6월 평가	77.9	74.4	72.0	80.8	67.6	101.8
	2026년 7월 전망	75.3	75.6	68.0	78.8	58.8	94.6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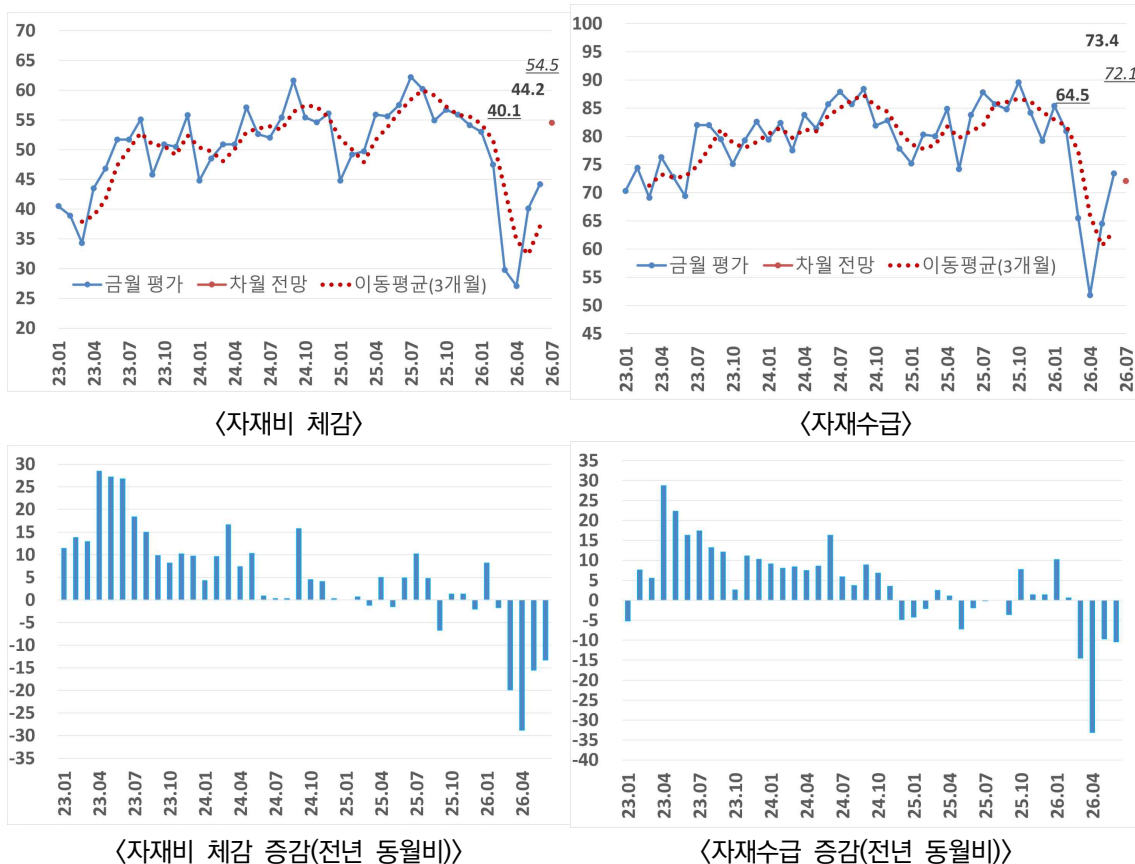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모두 전월보다 상승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44.2(40.1→44.2)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함(+4.1p). 차월(54.5)에도 상승이 전망되었지만(+10.3p), 최근의 중동사태가 예상이 어려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수도권(40.1→42.0)은 상승(+1.9p), 지방(27.5→45.2)은 크게 상승함(+17.7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3.4(64.5→73.4)로 전월에 이어 상승했으며(+8.9p), 차월(72.1)에도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1.3p).
 - 수도권(64.5→72.0)은 연이어 상승(+7.5p), 지방(58.8→74.0)도 상승함(+15.2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6월 평가	44.2	57.5	42.0	45.2	29.4	58.9
	2026년 7월 전망	54.5	61.9	56.0	53.8	47.1	71.4
자재수급	2026년 6월 평가	73.4	83.8	72.0	74.0	61.8	83.9
	2026년 7월 전망	72.1	82.5	66.0	75.0	50.0	91.1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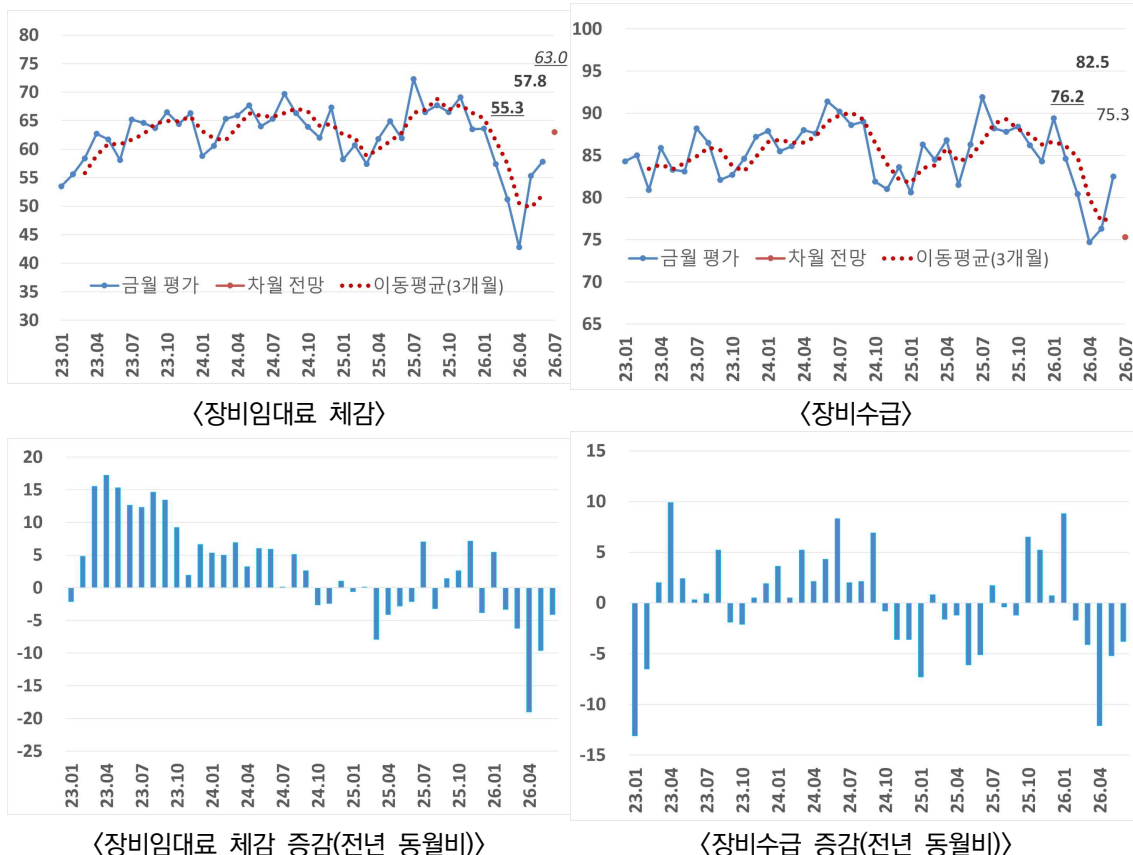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소폭 상승, 장비수급지수는 상승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7.8(55.3→57.8)로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했으며(+2.5p), 차월(63.0)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5.2p). 다만 금월 조사에서 응답업체들은 건설장비의 수급은 원활한 반면 임대료의 상승 및 관련 노조와의 조율 등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지적함.
 - 수도권(55.3→60.0)은 연이어 상승(+4.7p), 지방(43.1→56.7)도 상승함(+13.6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2.5(76.3→82.5)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나(+6.3p), 차월(75.3)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7.2p).
 - 수도권(76.3→84.0)은 상승(+7.7p), 지방(78.4→81.7)도 소폭 상승함(+3.3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6년 6월 평가	57.8	61.9	60.0	56.7	47.1	73.2
	2026년 7월 전망	63.0	65.6	72.0	58.7	61.8	80.4
장비수급	2026년 6월 평가	82.5	86.3	84.0	81.7	73.5	94.6
	2026년 7월 전망	75.3	83.1	76.0	75.0	61.8	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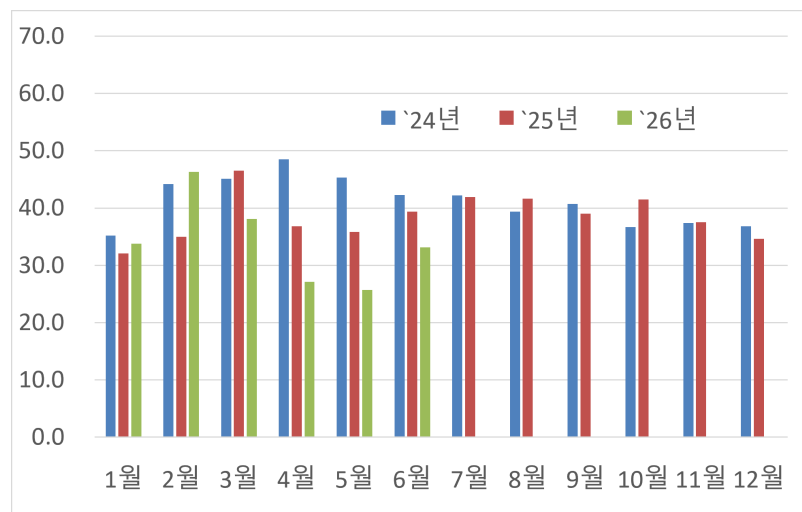


참고: 2026년 6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3.1	39.4	40.0	29.8	32.4	30.4
		차월 전망	39.6	43.1	46.0	36.5	38.2	44.6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6.1	55.6	64.0	37.5	70.6	35.7
		차월 전망	51.3	47.5	80.0	37.5	91.2	44.6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5.5	51.3	76.0	30.8	88.2	32.1
		차월 전망	43.5	44.4	66.0	32.7	73.5	33.9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5.2	58.8	64.0	51.0	67.6	48.2
		차월 전망	53.2	56.3	68.0	46.2	76.5	46.4
	자금조달	금월 평가	55.2	56.3	72.0	47.1	79.4	46.4
		차월 전망	48.7	55.6	58.0	44.2	58.8	46.4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1.7	63.1	58.0	63.5	44.1	82.1
		차월 전망	63.6	63.8	66.0	62.5	52.9	82.1
	인력수급	금월 평가	77.9	74.4	72.0	80.8	67.6	101.8
		차월 전망	75.3	75.6	68.0	78.8	58.8	94.6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4.2	57.5	42	45.2	29.4	58.9
		차월 전망	54.5	61.9	56.0	53.8	47.1	71.4
	자재수급	금월 평가	73.4	83.8	72	74	61.8	83.9
		차월 전망	72.1	82.5	66.0	75.0	50.0	91.1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7.8	61.9	60.0	56.7	47.1	73.2
		차월 전망	63.0	65.6	72.0	58.7	61.8	80.4
	장비수급	금월 평가	82.5	86.3	84.0	81.7	73.5	94.6
		차월 전망	75.3	83.1	76.0	75.0	61.8	89.3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